

윤여정, 韓 배우 최초 연기상...작품상은 '노매드랜드'

브래드피트가 주고 윤여정이 받아

'기생충' 봉준호 서울서 감독상 시상

클로이 자오 아시아 여성 첫 감독상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은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가 차지했다. 기대를 모은 '미나리'의 윤여정은 이번같이 여우조연상을 안았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역 등에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연결 위주였던 시상 방식을 최소화했다. 기존 오스카상 시상식이었다던 돌비 극장 외에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역을 활용하고 유럽 지역 출연자들을 위해선 런던과 파리에 특설 무대도 마련했다.

지난해 '기생충'으로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은 서울의 한 극장에서 감독상을 시상해 눈길을 끌었다.

'노매드랜드'의 자오 감독은 작품상과 감독

상을 가져갔다. 감독상은 아시아계 여성으로 처음으로 받았다.

남우주연상은 '더 파더'의 앤서니 홉킨스, 여우주연상은 '노매드랜드'의 프랜시스 맥도먼드에게 돌아갔다.

영화 '미나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스티븐 연)·여우조연상(윤여정)·각본상·음악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여우조연상 1개 부문 수상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린 윤여정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유쾌한 수상 소감으로 박수를 받았다.

브래드 피트의 호명에 무대에 오른 윤여정은 "드디어 브래드 피트를 만났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어디 있었나?"는 농담으로 시작했다.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인 A24를 설립했다.

윤여정은 "유럽 분들은 제 이름을 여려라고 하거나 그냥 정이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은 윤여정이다. 오늘날은 여러분 모두 용서해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나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윤여정은 특히 "정이사 감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며 "우리의 선장이자 나의 감독이었다"고 추어올랐다.

이어 함께 후보에 오른 배우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며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스 같은 배우와 경쟁을 하느냐"며 예우를 표했다.

그는 또 "경쟁을 먼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사실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다 다른 역할을 다른 영화에서 해냈다. 그냥 운이 좀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두 아들이 저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한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에 열심히 일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영화 데뷔작 '화녀'의 김기영 감독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여정은 한인 2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사)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에서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손주들을



돌보러 한국에서 온 할머니 손자를 연기했다. 한국 배우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여정은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한국 배우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아시아계 수상은 제30회 시상식에서 영화 '사요나라'로 여우조연상을 탄 일본 배우 고(故) 우메키 미요시에 이어 두 번째다.



강다니엘, '엘로우'로 물들인 70일 대장정 완료

'컬러' 시리즈의 세번째 앨범이자 마지막인 앨범

가수 강다니엘이 '엘로우'의 70일 대장정을 마쳤다.

시작과 끝이 화려했던 2개월이다. 강다니엘은 마지막 무대인 지난 25일 SBS '인기가요'에서 타이틀곡 '안티도트'로 1위를 거머쥐었다. 4월 넷째주의 음악 방송 1위 올킬을 달성했다.

'엘로우'는 '컬러' 시리즈의 세번째 앨범이자 마지막인 앨범이었다. 타이틀곡 '안티도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명제로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이중성과 모순, 반전을 담았다.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앨범이었다. 무대마다 대미를 장식한 독무 퍼포먼스는 시선을 압도했다.

발매 첫 주 음반 판매량은 31만6542장.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부터 이번 '엘로우'까지 솔로 데뷔 이래 발매한 네 장의 앨범 모두 역대 솔로 아티스트 초동 판매량 톱10 안에 진입했다.

뮤직비디오 역시 자체 기록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단순한 성적보다 음악적 실험과 메시지 전달에 무게를 뒀던 앨범이라서 더욱 뜻깊다. '안티도트'는 4일 만에 3000만뷰를 넘었고, 선공개곡이었던 '파라노이아'도 뒤따라 3000만뷰를 돌파했다.

방송 무대는 끝이 나지만, 팬들과의 소통은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공식 계정을 통해 다양하고 특별한 콘텐츠, 미공개 메이킹 영상을 차례로 공개한다.

엑소 백현, 다음달 1일 스페셜 라이브

랜선 생일파티 '비-데이: 백현-데이'

엑소 백현이 다가오는 생일을 기념하여 스페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브이 라이브 엑소 채널에서는 스페셜 라이브 '비-데이: 백현-데이'가 진행된다.

백현은 팬들과 함께 하는 유쾌한 랜선 파티를 예고했다.

이번 방송의 콘셉트는 오는 6일 생일을 맞이하는 백현의 '미리 생일 파티'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 토크, 미니 게임, Q&A 등 다채로운 코너가 펼쳐질 예정이다.

백현은 최근 세 번째 미니앨범 '밤비'로 발매 20일만에 100만장의 판매고를 돌파했다.

이어 그룹과 솔로 앨범까지 통산 7번째 밀리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오월의 청춘' 이도현·고민시·이상이·금새록, 포스터 공개

다음달 3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이 4인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5월 3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극본 이강/연출 송민엽, 이대경 /제작 이강이 사냥꾼)은 이도현(황희태 역), 고민시(김명희 역), 이상이(이수찬 역), 금새록(이수현 역)의 모습이 담긴 캐릭터 포스터 4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이도현, 고민시, 이상이, 금새록이 '오월의 청춘'에서 맡은 캐릭터들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있어 네 남녀의 사연에 궁금증이 고조된다.

먼저 이도현은 자신을 둘러싼 편견에 맞서는 '황희태' 역에 완벽 몰입한 눈빛을 내비치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편견과의 전쟁'이라고 쓰인 글귀를 가슴에 새기듯 비장하지만 깊은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된 황희태 역을 맡아 무게감 있는 내면을 표현한다고 해 기대를 더하고 있다.

이어 3년 차 간호사 김명희 역을 맡은 고민시의 몰려선 없는 태도에서 인물이 가진 단호한 성격이 느껴진다. 특히 '백의의 천사'를 '백의의 전사'로 고쳐 쓴 문구가 그녀가 어떤 캐릭터

될지 더욱 궁금케 만든다. 고민시는 고향을 떠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단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김명희의 절실함을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이상이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무역회사 비즈니스맨 이수찬 역으로 변신, 짙은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표정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글귀가 부유층 장남이 가진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 매력적인 슈트 차림의 그가 가진 사연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이수찬(이상이 분)의 세 살 터울 동생 이수현을 맡은 금새록은 80년대 학생 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해냈다. '법학과 잔다르크'로 통하는 그녀는 부유층 집안의 부채감이 느껴질수록 학생들을 결집시키는 일에 사력을 다한다고. 금새록이 그려낼 이수현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증폭되고 있다.

한편,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이도현 분)와 명희(고민시 분)의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다.

'틱톡 솔로나잇', 규현·태민·제시·이영지 출격...MC 김이나

다음달 6일 틱톡 스테이지(@tiktok_stage)서 라이브 방송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이 언택트 라이브 공연 '틱톡 스테이지 솔로나잇'을 개최한다. 국내 대표 솔로 뮤지션 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태민, 제시, 이영지 총 4명의 아티스트가 총출동한다.

오는 5월 6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틱톡 앱 내 틱톡 스테이지(@tiktok_stage) 계정에서 라이브로 방송된다. 틱톡 앱을 사용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명 작사가 김이나가 MC로 참여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담은 진행을

결들일 예정이다.

틱톡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이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총 3개의 사전 이벤트를 마련해 26일부터 행사 전날인 5월 5일까지 진행한다.

첫 번째 이벤트는 '김이나의 틱톡이나 할까'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챌린지 영상 중 아티스트가 영상을 찍어주길 바라는 콘텐츠에 댓글로 아티스트의 틱톡 계정과 틱톡 스테이지 계정을 태그하면 응모된다.



박수민 "실화탐사대, 악의적 보도...손배소 청구할 것"

SKY, 채널A '강철부대'에서 하차한 박수민 중사가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양원준 변호사는 26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17일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박수민씨에 관한 의혹에 무책임한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간통, 조대남, 불법도박, 몰카, 성범죄, 대부업, 학교 폭력과 같이 자극적인 소재만으로 구성해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며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

로 이루어진 탐사보도 자체가 적절하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과잉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확인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도에 앞서 당사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방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 및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편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박수민 씨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측은 "검증된 사실이 아닌 제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멘트를 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어설픈게 모자이크 처리한 박수민 씨의 출연 장면을 삽입하여, 방송을 본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을 공개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은 박수민씨가 여전히 제작진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으나, 박수민 씨는 이미 방송 전부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제작진은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박수민 씨에게는 최소한의 방문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